

목숨보다 귀한 믿음

우리는 순교자 성월의 후반부를 보내고 있다. 순교자 성월을 지내는 목적이,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해 순교하신 성인 성녀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행적을 기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내리신 하느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달로 거룩하게 보내자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순교란 ‘자신의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는 일’이다. 따라서 순교자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을 뜻한다. 본래 라틴어의 ‘순교자(Martyr)’라는 말속에도 ‘증인, 증거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 즉 순교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진리를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증거한 사람들인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증거했을까? 순교 선열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대로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를 증거한 분들이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 24) 목숨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여기에 삶의 모든 가치를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한 분들이 곧 순교자인 것이다. 그 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특별히 영웅적인 삶을 보여주신 분들을 교회에서는 ‘성인(聖人)’으로 받들어 공경하고 그분들의 생애를 기리며 그들의 참 신앙을 본받으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앙의 모범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최초로 한국인 사제가 되신 분으로 26살에 순교하셨고,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박해시대 때 신부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복사도 하고 길 안내도 했던 훌륭한 평신도로서 45살 나이에 순교하셨다.
오늘은 이 두 순교 성인(聖人)을 포함한 103위 순교 성인과, 아직 성인 반열에 오르지 못한 1만 여명의 무명 동료 순교

자들을 기념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뿌리를 생각해보는 날이다.

오늘날의 현실에 ‘죽어야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러한 세속적인 현실 속에서 죽음으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셨음을, 이 세상에 자신 있게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 38-39) 아멘.

백순기 힐라리오 신부

거짓의 사람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거짓과 죄인됨을 한사코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거짓의 사람", "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치유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악한 사람들은 바로 "거짓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기만을 쌓아 올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지배적인 특징은 곧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에 있다. 책임 전가 행위의 뿌리와 핵심적인 죄는 자기를 미워할 줄 모르는 것,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자신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양심의 결손이 아니라 양심을 공정하게 다루기를 거부하는 태도다.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불끈 쥔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 장갑 등은 악한 사람들의 위장술이다.

악한 사람들은 종교가 보장하는 위장과 은폐를 찾아 그 경건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는 성향이 있다. 악의 사람들은 자기도취적 성향이 크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길 밖에 갈 줄 모르며, 다른 사람(신자)들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M. 스코트 펙'이 쓴 '거짓의 사람들' 참고)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듯이 진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적나라한 거짓이 아니라 그럴듯한 반쪽 진리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계관시인인 테니스도 ‘할머니’라는 시에서 반쪽 진실의 위험성을 간결하게 읊었습니다.

"진실을 반쯤 섞은 거짓말이 더욱 무섭다. 가장 시커먼 거짓말, 온통 새빨간 거짓말은 즉각적으로 대항하여 싸우기가 쉽지만 그러나 일부분만 진실인 거짓말은 훨씬 싸우기가 어렵다네."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린 사람들이 소리치는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옳은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을 믿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반쪽-진리의 자들은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여러 불법(간통, 횡령, 도박)을 저지릅니다. 많은 거짓 교수들은 신학적 지식과 이성에서 탁월하지만 성령님과 의 직접 친교와 교제함에 대해서는 캉캉한 사람들입니다. 참 하느님의 일꾼은 자신은 철저히 죽이고! 낮추어! 오직 하느님만을 높이지만 사탄과 마귀들의 일꾼들은 하느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신자들 위에 드높여 군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믿음과 신앙이 깊은 척, 위장하는 한편, 자신은 마치 죄인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인은 세상에서 사기당하기 보다는, 그리스도교 내부의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나 "이단"에 속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요!

그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직접 그 사람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참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위와같은

경험을 하게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 모든 신자에게 영육간에 거짓, 가짜, 사기, 허위, 부정직 등을 진실로부터 구별하는 능력인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의 물결이 사방에서 넘실대는 혼탁한 이곳에서 미혹의 함정에 빠져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참조)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의 해”에 바치는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 당 소 식

◎ 감사합니다.

본당의 날 행사준비에 도움을 주신 온타리오 한인 사제협의회 신부님들과 각 본당 사목회, St. Anthony Daniel의 Father Earl Talbot(얼 신부님)과 사목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 본당 홈페이지 오픈

kwpaul.com 또는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막시모 형제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 2009년 여성 꾸르실료 주말 신청 안내

일 시 : 10월 15일(목) - 10월 18일(주일)

장 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신청마감 : 9월 15일 (화) / 참가비 : \$ 320.00

문의: 울뜨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10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2구역입니다.

▷ 11월 : 청소년부

▷ 12월 : 사목회의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10월 : 워털루 3구역

◎ 성모회에서 버섯 판매를 합니다.

문의 : 성모회 총무 한 데레사

다음 주일에 배달합니다.

= 광고 =

Cambridge Town Center 내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부문 : 디시워셔, 웨이추레스

전화 : 416-919-9091

▣ 본당신부 단상(斷想)

갑자기 떠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기쁨으로”(루카 1, 47)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 돌이나 켓이 모일 때, 미사성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주어 담으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편지 3장 14절에는 “꾸준하게 앞만 보고 달리라”는 사도 바오로의 권고가 나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사제의 삶은 그분이 말씀하시던 “에”해야 하니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운 본당신부님이 부임해 올 때까지 송로마노 신부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송신부님께도 뒷정리를 부탁하는 제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제로써 저만 편하자고 가버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송신부님의 말씀을 잘 따라주시리라 믿겠습니다. 9개월 동안 본당 공동체와 함께 지내면서 제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돌아오르길 주님께 청하겠습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安寧)이란 말은 편한 사이에서 헤어지거나 만날 때 하는 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2009년 9월 20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35.00
교 무 금 : \$ 100.00 208(100)
감 사 금 : \$ 140.00 188(10) 191(20) 203(20) 226(20) 244(50) 246(20)
성전건립 : \$ 385.00 182(40) 184(20) 188(20) 196(50) 199(20) 206(20) 208(40)214(20) 222(50) 224(100) 239(5)
(성모동산 누계 : \$ 4780.00)
본당창립축하금 : \$ 8015.00 외 성물
합 계 : \$ 1460.00
현재 본당 BALANCE : \$ 80,094.38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kwpaul.com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22009-40호

2009. 9. 27.

연중 제 26주일

해설 신계연

차주 해설 박명옥

성 가

입 당 (26) 이끌어 주소서

봉 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 체 (179) 주의 사랑 전하리

되 장 (286) 순교자의 믿음

화 답 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영성체송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독 서

9월 27일 노동원 노성은

10월 4일 윤명원 윤명희

봉 헌

9월 27일 박용대 박명옥

10월 4일 노동원 노성은

복 사

9월 27일 류지흥 호 동

10월 4일 류지현 김건우

친 교

9월 27일 성모회와 워털루 3구역 협조

10월 4일 성모회와 워털루 4구역 협조